

책으로 떠나는 가족나들이

가볼 만한 행선지 안내한 책 풍성

꽃소식이 요란하다. 아이도 어른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김밥이라도 싸서 가족나들이를 나서보면 어떨까.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웬만한 곳은 인파로 북적댈 것이고 차는 또 얼마나 밀릴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나선 길이 짜증길이 된다면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는 안 간 것만 못하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서점에 먼저 나가보는 것도 성공적인 나들이를 위한 한 방법이다. 아이들과 함께 가볼만한 좋은 행선지, 볼거리들을 안내한 책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나들이 코스 집중 소개

《엄마아빠 일요일엔 여기 가요》(혜인)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코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은 물론이고 도서관, 문화원, 서점 등 의외의 효과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장소도 빼놓지 않는다. 공원이나 유원지, 능 같은 아이들

이 좋아하는 놀이공간과 소풍장소도 있고, 시장·백화점·재활용센터 등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안내한다. 각 장소의 개폐시간, 입장 요금, 휴일, 주차시설, 차편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유래나 감상요령 등을 밝혀 충실한 나들이를 돕는다.

나들이를 통해 교육효과까지 거둔다면 금상첨화. 《자녀와 함께 하는 나들이》(장다혜 지음, 김영사)는 아이의 정서와 역사인식,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만한 장소들을 엄선해 안내한다. 바보 온달이 싸웠던 아차산, 암사동 선사 유적지 등 반나절만 짬내면 멋진 가족나들이를 할 수 있는 서울 근교의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나들이를 망설였던 부모들에게 반가운 책이다.

가족들과 함께 통일로를 따라 임진강쪽을 달려보면 어떨까. 열두굽이가 휘어져 오르내리면서 계속마다 다리가 놓인 파주의 설마령을 달리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탄성이 절로 난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드라이브》(최동욱 지음, 정우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를 소개한다. 근거리 세부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 및 주요 지방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 안내서들.

도로 방향표지와 목적지까지의 주요 지점명을 자세하게 표기해 책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최신 정보 수록

산꾼 박영래씨가 각 산의 지형도와 사진과 함께 엮은 《가족산행》(수문사)은 등산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지침서다. 여러 산의 산세와 역사, 일화하는 물론이고 갈림길, 계곡길과 능선길 등 주요 등산로와 새로운 등산 코스도 빠짐없이 소개했다. 교통, 숙박편 등 최신 정보를 빼놓지 않고 입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행은 짧은 나들이보다는 여러가지로 많은 부담이 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릴 경우라면 외국 여행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 모험을 실천한 용감한 아빠들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핑계로 자신과 가족들을 일상의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자극을 준다.

만 두살이 지난 아들 석진이를 데리고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김재민씨가 펴낸 《아기와 함께 배낭여행》(우신사)은 젊은이들도 선뜻 나서기 힘든 배낭여행을 우유도 덜 떼 아이를 업고 다녀온 '장한' 여행기록이다.

열살도 안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로 독일과 스페인을 여행한 강덕치씨의 용감함도 이에 못지 않다. 《아빠와 함께 하는 자전거 여행—독일편, 스페인편》(현암사)이 그 기록.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자간의 정을 키워가는 모습이 재미있는 글과 그림,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박남정 기자

표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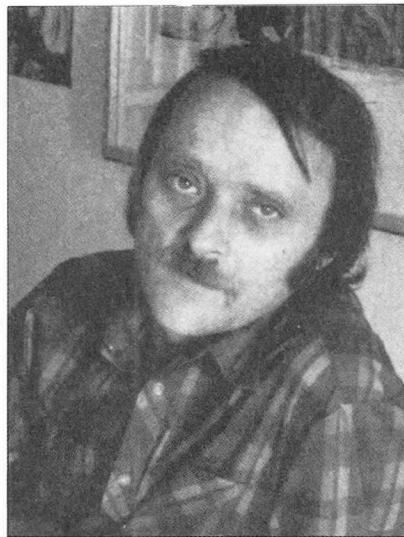
다시 찾은 어린이꿈의 세계

'안데르센상' 받은 두산 칼라이의 작품

올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지닌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슬로바키아의 두산 칼라이의 작품 전시회가 5월6일부터 31일까지 워커힌 미술관(450-4666)에서 열린다.

전통적인 선의 흐름, 섬세한 시각적 언어, 목가성 짙은 작품으로 뛰어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산 칼라이의 작품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기울이는 어린이책에 대한 또다른 애정을 엿볼수 있다. ❖

두산 칼라이(1948~).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미술대 교수.
'BIB' 금상 볼로냐 북페어
유니세프상 등 수상.



가족사랑의 새로운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사랑법 제시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 등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랑을 그려낸 다양한 책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되고 있는 가족관련 교양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씌어진 부모들이 읽을 만한 '지침서'

형태의 책, 어린이 필자가 쓴 일기형태의 글들, 삶속에서 경험한 가족의 사랑을 쓴 수기형태의 책들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가족 관련 서들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점점 해체되어가는 가족의 의미를 고루한 유교적 가족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깨우치는 책들이 눈길을 끈다.

아닌 평등과 개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실정과 개념에 맞게 서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평등과 개성 강조

김영사에서 출간된 《평등부부 반쪽이네의 가족일기》(전2권)는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신문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평등부부상'의 첫 수상자인 만화가 최정현씨와 영화평론가 변재란씨의 생활체험을 묶은 만화집.

모든 일을 분담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치는 일상을 그린 이 책은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가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책임을 통한 한 부부의 삶을 친숙한 그림과 반짝이는 글로 풀어내고 있다. 만화집이라고 해서 대충 읽고 덮어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아빠, 난 아빠같은 아빠가 될래요》(박상욱 지음, 가리온)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한 한 소년의 가족에 대한 일기형태의 짧은 단상들을 모아놓은 책. 저자인 박상욱군은 시인 박중석씨의 아들로 지난해 《키는 1미터 마음은 2미터》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순수하고 호기심어린 눈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본 솔직하고 진지한 감상이 담겨 있다. 뛰어난 상상력과 관찰력이 돋보이는데, 때문지 않은 소년의 가족에 대한 궁금증과 애정, 혹은 어른스러운 정도의 세상사에 대한 의문 등을 통해 동심의 세계를 느낌과 동시에 사랑의 힘과 가족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화목한 가정에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한창 일할 나이에 가장에게

내려진 폐암진단. 그때부터 온 가족은 암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항암제의 후유증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가장을 눈물로 지켜보며 그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다》(김인경 지음, 동아일보출판국)는 한 가족이 암에 걸린 가장을 간병하는 과정을 기록한 감동의 수기이다. 그러나 이 책은 수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각의 가족이 집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가족의 의미'를 적절하고 생명력 있게 시사해준다.

프레스빌에서 출간된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김재은 지음)는 교육심리학자인 저자가 이 시대 부모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이의 내일이 밝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밝고 건강하게 키워라"는 주제의 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세계화된 시민사회와 통일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녀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치변화에 따라 달라

이밖에도 가족의 사랑을 주제나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책들은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고 또한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 아무리 앞서가는 미래학자일지라도 '가정'이라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가족'은 인간을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법은 사회구조와 가치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최근에 출간된 책들에선 바로 이런 가족사랑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읽을 수 있다. — 허연 기자

바쁜 원고 까다로운 원고는 모두 삼연의 뜻으로 남겨두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편집 일을 두고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땐 바로 삼연편집실을 찾아 주십시오.

.....
자사전·회고록·개인 출판물 및 문예물 등을
집필해 드립니다.

또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고
유려한 문장이 되도록 운문도 해드립니다.

사전류·한서류·문학 및 학술 서적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완벽한 교열·교정을 해드립니다.

교정과는 별도로 전문 레이아웃도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잡지·사보·단행본 등
그 출판물의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알차고 깔끔하게 면구성을 해드립니다.



맥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三硯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549-6883~5 팩스·모뎀: 515-1453
천리안 ID: SAMYEUN